

FOCUS

6

방향성 판단

단순한 함정같지만 방향성을 파악해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219 Subject 1

2106 정철, 「관동별곡」 40번

학습목표 • 중간에 끼워 넣는 함정 피하기

223 Subject 2

2409 (다) 서영보, 「문의당기」 26번, 27번

학습목표 • <보가>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선지에서 물을 때 실수하지 않기

226 Subject 3

2411 (가) 김종길, 「문」 23번

학습목표 • <보가>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기

단순한 함정값지만 방향성을 파악해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작품에는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 선지를 구성하는 단순한 방법은 앞 뒤 바뀌치기를 하거나 중간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수험생들의 오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험생들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작품의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지를 읽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한 후에도 “그냥 실수했어”라고 말하며 답을 체크한 후, 빠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유형에 대한 대처방법을 갖추지 못한 채, 다시 이 유형과 마주하고 또 틀리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작품에 제시된 사건의 방향성을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서 ‘A → B’라는 방향(순서나 인과 관계)이 제시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선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지에서 ‘A → C’처럼 다른 관계를 묻거나 ‘B → A’처럼 순서를 바꿔 물을 때도, 원래의 ‘A → B’라는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출제자들은 더 교묘하게 ‘A → C → B’같이 중간에 새로운 요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작(A)과 끝(B)만 대충 보고 판단할 경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틀리게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문제 풀이 단계에서부터 작품의 흐름을 기준 삼아 방향성을 면밀히 판단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작품이나 <보기>에서 제시된 ‘방향성’의 판단을 연습합니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뽕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녑녀(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맺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풀*
 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 정철, 「관동별곡」 -

*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서호 넷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동명 : 동해 바다.

* 음애에 이온 풀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여산 :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중간에 끼워 넣는 함정 피하기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샛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대상 선학(仙鶴), 호의현상(학의 흰 모습)

상황 화자가 금강대(공간 배경)에서 학이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관찰함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현사도 현사할샤

대상 소향로, 대향로, 진혈대, 여산

상황 소향로와 대향로를 굽어봄, 진혈대(공간 배경)에
올라 진혈대의 경치를 '여산'에 빗댄, 금강대 →
진혈대

정서 감탄

태도 예찬적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왔는 듯
눕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대상 망고대, 혈망봉('너'→의인화)

상황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함, 망고
대와 혈망봉을 '너'라고 칭하며, 굽힐 줄 모르는
지조와 절개를 예찬함(In 자연, To 자연)

태도 예찬적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넉(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대상 중향성(시선)

상황 개심대(공간적 배경), 진혈대 → 개심대(공간 이동)
중향성의 맑은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자함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플
을 다 살와 내여스라

대상 화룡소, 삼일우, 음애에 이온 풀(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

상황 화룡소의 모습을 천년 노룡이 서려 있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함, 시든 풀을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냄

태도 예찬적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어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서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닛단 말 못 하려니

대상 천심 절벽, 여산

상황 안문재 → 불정대(공간 이동), 절벽의 모습을 은하수를 베어내어 걸어 둔 모습에 빗댄, 여산보다 낫다는 표현이 돋보임

정서 자부심

교훈 · 작품 독해

기행 가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며, 화자가 현재 어느 공간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공간의 이동이 제시될 경우, 화자의 시선과 구분해야 합니다. 화자가 A에서 B를 바라본다고 제시한 후, 선지에서 A에서 B로 이동했다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③

• 보기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대부: 하늘의 이치 → 자연 → 관념

화자: 하늘의 이치 → 자연 → 현실(사실)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② 화자는 ‘혈망봉’에 ‘천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라고 묻고,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있는가’라며 직접 말을 건넵니다. 이처럼 화자는 혈망봉을 굳건한 지조와 절개를 지닌 존재로 의인화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적절합니다.

③ ‘개심대’에서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자연에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합니다. 작품에서 화자는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 고자’라고 표현하며, 자연의 맑은 기운으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화자가 자연 감상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적절합니다.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천지 삼기설 제 자연이 되언마는’과 <보기>에 의하면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되었고,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하늘의 이치 → 자연’입니다. 해당 선지에서는 ‘하늘의 이치 → 인간 사회 → 자연’이라고 주장합니다. 작품이나 <보기>에서 인간 사회가 자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화자는 ‘불정대 올라 하니’라는 구절에서 불정대에 올라 폭포를 바라보며, 은하수를 ‘실가티 플터 이서 베가티 거러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폭포를 ‘실’과 ‘베’라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하는 작가의 특징과 대응하므로 적절합니다.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 ‘여산이 여괴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에서 중국의 ‘여산’과 비교가 드러납니다. 관념적인 자연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과 일치하므로 적절합니다.



교훈 • 작품 독해 및 선지 판단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과 관계,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단순한 방향 바꾸기부터 없는 과정 삽입하기까지 다양한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보기>에서는 ‘A → B’라고 제시했으나, 선지에서는 ‘A → C → B’로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없는 과정이 추가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얼핏 봤을 때,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끊어서 머릿속에 넣고, 합쳐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다)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 물결무늬.

2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의 O/X를 판단하라. [3점]

• 보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X

- ②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X

- ③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 X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선지에서 물을 때 실수하지 않기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漪)’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나’]

- 천하의 지도를 보고, 큰 나라는 ‘범선’에,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에 빗대며,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위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 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

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나’→신위]

- 화자는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물과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에 사는 것이다.’라는 예시를 통해, 신위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대지=하나의 섬

세상 사람들=섬사람

2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의 O/X를 판단하라. [3점]

• 보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정답 ×

⇒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모두 육지로서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두 대상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지도’를 통해 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의미 생성의 방향이 반대로 제시되었습니다. 원문에서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신위’는 ‘지도’를 통해, ‘대륙’과 ‘나라’의 유사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입니다.

천하의 지도 → [아홉 개 대륙 ≒ 일만 개 나라]

 교훈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사’와 ‘대립’의 관계만 제시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주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때, 선지에서 인과 관계, 선후 관계에 대한 것을 묻는다면, <보기>의 범주를 고려하며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 ②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정답 ○

⇒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라는 구절에서, ‘파도’와 ‘깊은 물’은 모두 바다의 형상을 나타내는 유사한 요소들입니다. 이 두 대상은 ‘물에 사는 사람이 접하게 되는 환경을 표현함으로써, 비록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물에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

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어 물에 사는 사람의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③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정답 ×

⇒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속성(바다 위를 나는 새)을 가진 소재입니다. 두 새는 서로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의 새로서 함께 묶여 작은 나라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실제 대비는 ‘범선’(큰 나라)과 ‘갈매기와 해오라기’(작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기

• 보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방향성 : 자연의 힘 → 인간의 쇠락과 생성

문 : 새로운 역사의 생성 가능성

깃발 : 이상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화자 이면적 화자

대상 흰 벽(인공물), 나뭇가지(자연물)

상황 흰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짐

정서 고요하고 편안함이 지속됨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대상 단청(인공물), 두리기둥(인공물), 별(자연물), 바람(자연물)

상황 단청의 변화(쇠락)와 기둥의 변화(쇠락)를 관찰
[자연물→인공물]

정서 서럽지 않음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달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대상 기왓장(인공물), 푸른 이끼(자연물), 세월(관념의 구체화), 바람, 문(?)

상황 기왓장(인공물)에 푸른 이끼(자연물)가 앉음(쇠락)
[자연물→인공물], 문이 달혀있음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대상 주춧돌(인공물), 가을풀(가을의 자연물), 푸른 싹(봄의 자연물), 진분홍 꽃(봄의 자연물)

상황 주춧돌 위에 가을풀(쇠락)이 우거졌으나 봄이 오면 푸른 싹과 꽃(생성)이 피어남 [자연물→인공물]

⇒ 자연물은 자연을 상징하고 인공물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작품에서 반복된 ‘자연물 → 인공물’은 <보기>의 ‘자연 → 인간’에 연결됩니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종종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대상 푸른 높은 하늘, 별, 사나운 비바람, 문(!)

상황 사납던 비바람이 걷히고, 별들이 돌아오며, 닫혀있던 문이 열림, 새벽(시간적 배경)

- ⇒ <보기>에 의하면, 문이 열린 것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대상 깃발, 푸른 하늘

- ⇒ <보기>에 의하면 ‘깃발’은 이상을 상징합니다. 화자는 그러한 ‘깃발’을 그리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바람이 그치고 문이 열리며 다시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보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 ‘흰 벽’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나뭇가지’는 자연물이기에 자연을 상징합니다. <보기>에 의하면,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합니다. 이는 ‘자연→인간’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해당 선지에서는 ‘인간→자연’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힘의 방향이 반대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 ‘두리기둥’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별’과 ‘바람’은 자연을 상징합니다. ‘두리기둥’에 ‘틈’은 인간의 역사가 쇠락함을 드러냅니다. 이 ‘틈’에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별’과 ‘바람’이 스며들었기에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 ‘기왓장’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이끼’는 자연물이기에 자연을 상징합니다. ‘이끼’가 ‘기왓장’에

덮여 갔으므로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왓장’에 ‘세월’이 쌓였기에 인간의 역사가 쇠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보기>에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을 통해, 생성의 가능성을 찾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주춧돌’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푸른 싹’과 ‘나무’는 자연물이기에 자연을 상징합니다. 이때,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에서 인간의 역사가 쇠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 ‘문’은 <보기>에 의하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작품에서 ‘오래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비바람이 걷힌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이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기>에서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